

대구주보

사순 제5주일
2012.3.25.(나해) 제1774호



† 금주의 성화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짊어지다

“구세주 예수님, 시몬이 주님을 도와 십자가를 짊어지니, 저희도 주님께서 맡겨 주시는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지고 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 기도는 이콘 작가들뿐 아니라 다른 많은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뛰어난 작품의 계기가 되었다. 프란츠 리스트는 십자가의 길 기도 전체를 작곡하였고, 매 처마다 바치는 “어머니께 청하오니...” (Stabat Mater) 노래는 팔레스트리나, 페르골레지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2004년에 개봉한 멜 깁슨의 “그리스도의 수난(Passion of the Christ)” 영화는 14처를 매우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흥구(스테파노) 작
한국 가톨릭 이콘 연구소장

† 오늘의 전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0-33 참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아버지께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달려 계신 십자가 아래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도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제자 된 우리의 영광입니다.

제1독서 예레 31,31-34 제2독서 히브 5,7-9 복음 요한 12,20-33

화답송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3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먼저 양보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인고의 시간



주민기 베네딕토 신부 / 대잠성당 주임

대나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몸집과 키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의 직경은 처음 죽순의 크기와 같으며, 대나무의 키는 죽순 속에 감춰진 마디의 수로써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뿌리에서 죽순의 모습으로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일단 땅을 비집고 나온 죽순은 대나무로 성장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의 오랜 시간, 힘들고 지루하고 그래서 포기하고도 싶은 시간이었겠지요. 하지만 대나무가 지닌 무서운 성장속도는 바로 땅 속에서 지낸 인고의 시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는 그 인고의 시간 동안 최대한 뿌리를 넓게 뻗고 영양분을 빨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땅 속 어둠의 시간을 거쳐야만 하고, 그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잘 참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암시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한 알의 밀알이 새로 나기 위해서는 땅 속에 묻혀야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 기나긴 시간을 참고 이겨내야지만 밀알은 생명을 싹틔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알은 땅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뼈를 깎는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을 참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고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서는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손에는 십자가에 박혀 못 자국이 나기 전에 먼저 목수 일로 생긴 굳은살이 박여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목수로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 박인 굳은살은 예수님만이 감당하고 이겨내야 했던 그 숭한 인고의 시간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상의 삶 안에서 자기를 죽이며, 모든 고통과 유혹들을 참고 이겨내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죽는다는 것은 매 순간 아낌없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순간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땅 속에 묻혀 썩어버리는 밀알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멘.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김덕우 안토니오 신부 / 도량성당 보좌

각종 데이(Day)가 우리 시대의 달력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언제부턴가 매달 14일은 모두 연인들의 필수 코스들로 채워져 있더군요. 그리고 열두 번의 14일 기념일뿐만 아니라 제과업체에서 농축산업계까지 마케팅 전략으로 별별 기념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행처럼 사람들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각종 데이들을 두고 찬반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신중 기념일들이 우리 시대의 보이지 않는 약속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술로 짜인 유행만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우리시대의 독특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본이 없는 기념일처럼 보이지만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고자하는 인간의 심성을 바탕으로 하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상술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사랑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이들이 염려하듯이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으로 이뤄지는 약속들이 우리 시대에 허무를 조장한다는 것도 좌시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질이 사랑의 척도가 되고 인간관계의 목적이 될 때 남겨지는 상처와 고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도 이 시대의 문화 현상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하느님께서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가는 배움터이자 그 사랑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수많은 데이들의 옹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근본을 따지기 전에 하느님께서로부터 배우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잘 지켜지고 성장하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우고 자란 이들이 껍데기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위험에서 보호되고 또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 줄 알기를 기대해 봅니다. [▶](#)

Q. 판공성사가 뭐가요?

A. 판공이라는 단어는 '판공(辦公)'이라 쓰기도 하고 '판공(判政)'이라 쓰기도 합니다. 어느 쪽 새김을 따르든지, 판공성사라고 하면 고해성사의 기회에 교우들의 신앙생활 상태를 점검한다는 뜻이 됩니다. 교회법에서는 모든 지각 있는 신자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1년에 두 번, 부활시기와 성탄시기에 의무적으로 고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나의 기도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주일 말씀 :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제1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계약에서 마음이 멀어진 것을 본 예레미야는 돌판에 새겨진 시나이계약이 아닌 가슴과 마음에 새겨지는 새로운 계약, 즉 “하느님을 아는” 친밀한 관계에 대하여 말합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중요한 “때,” 즉 죽음과 부활, 수난과 영광의 때를 대비해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라고 겸손과 순종의 기도하심으로써 당신의 육체적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느님께서서는 하늘의 표징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과 교리 :

• 그리스도인의 기도 - 겸손과 신뢰의 기도

“기도는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요, 또한 마땅한 은혜를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559).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들어 높인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느님을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께 비는 걸인이기 때문에 겸손은 기도의 선물을 무상으로 받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기도의 초석입니다. 성모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겸손한 자의 기도였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으니 우리도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겠다”는 기도(가톨릭교회교리서, 2617) 하느님의 계획에 협조하겠다는 겸손한 여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가르치셨고,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루가 22,42)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겸손과 신뢰로써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는 기도”(가톨릭교회교리서, 2600)가 되어야 합니다.

• 기도와 생활 - 기도 중의 분심

기도할 때 가장 흔한 어려움이 분심입니다. 분심은 무엇에 대한 집착입니다. 주님보다 다른 무엇에 집착하여 분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 대한 우선적인 사랑이 되살아납니다. 이러한 집착, 즉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인한 분심과 싸우기 위해서는 집착에 대한 경계심, 즉 마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언제 울지 모르니 항상 깨어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자세와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는 말씀에 따라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를 자주 함으로써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과 습관을 배웁니다. **2600**

묵상해 봅시다.

-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도와 일상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천주교회의 법규 - 1

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사목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모든 신자가 지켜야할 법규를 정하였습니다. 그 법규는 대개 다섯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과 의무대축일에 미사에 참례하고 파공할 의무, 금식과 금육을 지킬 의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고해하고 성체를 영할 의무, 가난한 이들을 돕고 교회의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해 헌금할 의무, 그리고 혼인에 관한 규정들을 지킬 의무입니다.

주일과 의무대축일의 미사참례와 파공

모든 주일과 의무대축일에 미사성제에 참여하고 육신의 이익을 위한 힘든 일을 피하고 안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파공(罷工)이라 합니다. 파공의 법규는 십계명의 제3계명,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일 외의 의무대축일은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입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일과 의무대축일에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죄를 면하지만, 미사참례의 의무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도저히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등으로 대신 주일 미사참례 의무를 채울 수 있습니다.

금식과 금육

만18세 이상 60세까지의 모든 교우는 일 년에 두 차례,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 금요일에 금식합니다. 금식은 과거에 대재라고 불렀는데 하루 한 끼만 충분히 먹고 두 끼는 간단히 요기만 하는 것입니다. 또 만 14세 이상의 모든 교우는 연중 모든 금요일에 금육을 지켜야 합니다. 과거에는 금육이라 하지 않고 소재라고 불렀습니다. 금육은 연중 모든 금요일에 지키는데, 생선을 제외한 육류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계란과 짐승의 기름으로 만든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다).

금식과 금육의 의무는 병자, 심한 노동을 하는 사람, 군인, 임산부에게는 면제되고, 여행 중이거나 다른 이들과 함께 식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본래 금식과 금육은 예수님의 수난에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식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지켜야 합니다. 절제하고 보속하는 것은 꼭 금식과 금육의 규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금식이나 금육을 지키지 못하거나 면제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절제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오늘의 미사 · 사순 제5주일

【입당성가】 123 십자가 지고 가시는
 【제 1 독 서】 예레 31,31-34
 【화 답 송】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제 2 독 서】 히브 5,7-9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봉헌성가】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복 음】 요한 12,20-33
 【영성체송】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체성가】 178 성체 앞에
 【파견성가】 118 골고타 언덕

† 교구 소식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3월 29일 목요일은 (故) 전달출(토마스데아퀴노) 신부님 2주기입니다.



† 예비신학생 입학 미사

교구 성소 및 신학생복음화(담당 : 이성호 요한 신부) 주관으로 마련된 예비신학생 입학미사가 3월 18일(일) 오후 2시 대구가톨릭대학교 남산동 대신학원 성당에서 250여 명의 예비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대리 이용길(요한) 신부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 <빛>



† 칠곡가톨릭병원

개원 10주년 기념 사랑의 콘서트

칠곡가톨릭병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는 <사랑의 콘서트>가 대구 평화방송 주관으로 3월 15일(목) 저녁 7시 30분 대구보건대학 인당아트홀에서 열렸다. 병원장 박강수(로무알도) 신부는 인사말씀을 통해 “지역민과 10년을 함께 해 온 만큼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칠곡가톨릭병원

† 금주의 주요 교구일정

- ▶ 2012년 3월 26일(월) 11:00,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전대사 미사 - 성모당
- ▶ 2012년 3월 28일(수) 18:00, 암브로시오회 미사 - 2군 사령부
- ▶ 2012년 3월 31일(토) 13:30, 제3기 로고스스피치학교 수료식 -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한알의 밀알처럼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모임

앗숨 기도 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19:00~(식사함께)
내용: 잠심 기도, 영의 찬미
대상: 마흔 여성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문의: (010)9056-9005

마리아의 전교사 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일시: 4.1(일) 13:00, 이곡성당
문의: 이 리디아 수녀(010)2570-0939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자 성주간 체험

일시: 4.5(목) 16:00~8(일) 14:00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생 이상~ 만32세 이하 마흔 남성
문의: (010)8353-2323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4.8(일) 14:00
장소: 부산 대연동성당 내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피정

일시: 4.1(일) 10:00~17:00 골롬반 본부
대상: 해외선교사제에 관심있는 젊은이
문의: (010)6818-3737

피정

성삼일 전례 피정

일시: 4.5(목) 17:00~8(일) 14: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14만 원
문의: 313-3425 / (010)7103-3425

젊은이 부활 전례 피정

일시: 4.6(금)~8(일)
장소: 포교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313-3431 / (010)8519-3431

삼성산 성지 2박3일 회복 대피정

일시: 4.13(금) 18:00~15(일) 15:00
강사: 김화태(제르바시오)신부 외 강사
문의: 차량 (010)9065-5395

교육 / 기타

40차 아일랜드 · 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2~8.12 (3·5주)

•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대·일반: 6.24~8.5(6·7주, 장기)
주관: 마 신부님(아일랜드골롬반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청소년사목연수(CAFE), 햇살청소년사목센터

기간: 6.25(월)~29(금)
장소: 의정부한마음청소년수련원
회비: 40만 원, 선착순: 130명
주제: 청소년·청년 공동체 활성화
문의: (02)744-0840 / www.hatsal.or.kr

국악성이 여름캠프

기간: 6.28(목)~30(토), 대전 요나성당
접수 마감: 5.20(일)
회비: 15만 원(교재, 숙박비 포함)
주제: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노래를
문의: 예수고난회 국악성가연구소 (070)8875-8827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

미사안내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26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26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구미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3월 26일(월) 오전 11시	도량성당
군중후원회 미사	3월 26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제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3월 27일(화) 오후 2시	계산주교좌성당
바뇌의성모님 기도회 및 미사	3월 29일(목) 오후 2시	삼덕성당
공소후원회 미사	3월 31일(토) 오전 11시	남산성당

www.appleuro.com
에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 · 여드름 · 레이저 · 모바일이식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강남피아노사
중고피아노 고가 매입
조음, 운반, 수리, 매매
각종 악기 영가 판매
☎ 010-3541-8194
053)423-7009
김 스테파노 (교우님 우대)

JINSUNG Architects & Interior
진성건축
건축사 · 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인테리어 시공 및 상담
대표/건축사 성 호 근(다니엘)
효목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017-242-7927, 053-952-7927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인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리식, 안내렌즈, 노안, 백내장수술
의학 박사
현, 연세대의대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053)626-8881~5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 · 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백두정형외과
어깨 관절경 수술전문
정형외과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백억두(아오스딩) 배상근(베드로)
소아청소년과/신생아재부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상영(미카엘라) www.baekduos.com
425-5919 평일 09:00~19:00
동인치안센터 건너편

송월타올
* 인 쇄 무 료 *
이영웅(베드로), 심옥섭(미카엘라)
☎ 010-9431-3276, 629-0745
- 반찬도 판매합니다 -
대명2동 199-1번지 교대 앞 영선시장 내

